



RADONS

## Simply Patgific!

### 즐거움의 미학, 파트기픽

험준한 산맥, 목가적 알프스, 수정처럼 맑은 호수 풍경이 펼쳐지는 그라우뷘덴에서 파트기픽은 느긋한 삶의 방식으로 통한다.



↑  
그라우뷘덴 지방에 전해오는 삶의 방식, 파트기픽에 대해 더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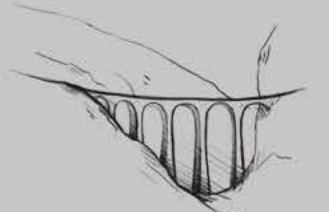
아침이면 창문을 열어 시원한 산 공기를 들이마시고, 코 끝을 스치는 따스한 햇살을 느끼고, 재잘대는 시냇물 소리를 듣는다. 눈을 감고 이 순간을 만끽한다. 아직 하루는 충분하고,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라우뷘덴에는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다. 바로 파트기픽이다. 덴마크의 휘계(hygge), 프랑스의 사부아 비브르(savoir-vivre)처럼 파트기픽은 안락한 느낌과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로망시어 표현이다. 그라우뷘덴의 자연 속에서는 번잡함보다 느긋한 순간이 대부분이라, 삶의 단순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사보닌(Savognin) 마을 위쪽 라돈스(Radons)에서처럼 말이다. 이곳에서 스위스 잣나무 내음을 맡고, 산에서 들려오는 메아리를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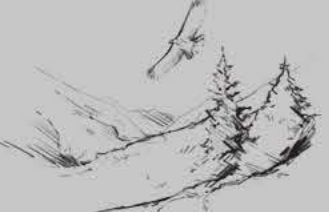
아직 파트기픽이 부족하다면?  
**모험 트레일 위에서**



**루이놀타에서 하이킹하기**  
라인 협곡(Rhine Gorge)의 트레일에는 바비큐를 즐기고 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쾌적한 장소가 많다.



**란트바서 고가고 기차 여행**  
길이 142미터, 높이 65미터의 란트바서 고가고(Landwasser Viaduct)는 곧장 암석 터널로 이어진다.



**야생 동물 관찰**  
스위스 국립공원(Swiss National Park)에서 붉은 사슴과 마멋이 우는 소리를 듣고, 빙빙 도는 수염수리를 관찰하자.

파트기픽을 즐길 수 있는 열두 가지 경험을 찾아보자.  
[graubuenden-erleben.ch/patgific](http://graubuenden-erleben.ch/patgific)

### 휴식 취하기

몸에 쌓인 긴장을 풀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장엄한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솜트간트(Somtgant) 중간역에서 라돈스까지 느긋하게 하이킹하며 파트기픽을 느껴보자.

### 호흡하기

크랩 페라라스(Crap Farreras) 전망대에서 계곡 너머와 수르세즈(Surses) 산맥 풍경을 바라보노라면 독수리 둥지에 파묻혀 있는 듯 느껴질 것이다. 바비큐 시설, 테이블, 벤치. 정상에서 즐거운 소풍을 즐기는 데 더 필요한 것이 있으랴?

### 자신만의 시간 누리기

조급해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내면의 속도에 집중해보자. 크랩 페라라스 정상 깃대에 비치된 방명록에 기록 남기는 것도 잊지 말자

### 즐거기

스위스 잣나무 향기는 자연 환경뿐 아니라 베르구스 라돈스(Berghuus Radons)의 객실에도 스며 있다. 소나무 널판을 벽에 덧댄 식당에서 식사한 뒤, 잣나무로 담근 수제 슈넵스를 꼭 맛보자.

